

중학생들의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동기 외상경험, 학교폭력 및 정신의학적 문제의 효과

석 미 란

장 은 영[†]

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아동기의 외상경험과 현재의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 및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중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경기도 한 도시에 소재한 한 중학교의 1학년과 2학년, 총 72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아동기 외상경험이 현재의 정서나 행동문제, 폭력경험 및 성적스트레스를 거쳐서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을 검증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현재의 정신의학적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학교중퇴 의도를 예측했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학교중퇴 의도를 예측했다. 신체적 학대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방임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및 학업성적스트레스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학업성적스트레스는 학교중퇴 의도를 유의하게 직접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유의한 경로들 가운데 성차를 보이는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는데, 아동기 방임이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중퇴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여학생들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반면에 정신의학적 문제가 중퇴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그 강도가 남학생들에게서 더 높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과 선행연구들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교중퇴 의도, 중학생, 아동기 외상경험, 학교폭력, 학업성적스트레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은영,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Tel : 031-560-2656, E-mail : jangmean@hanmail.net

최근 뉴스에 ‘무중력의 아이들’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는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조직체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2012. 12. 29, 경향신문).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약 7만 명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한다(2013. 4. 22,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기의 자살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덜 받은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비행이나, 성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안정된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우며 다시 학업에 복귀하기 힘들고, ‘부적응자’라는 인식마저 지니게 된다(오혜영, 박현진, 지승희, 2012).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겪는 핵심적인 문제로 ‘소속감의 부재를 꼽았다. 청소년기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 기술을 학습한다는 점에서(장휘숙, 2003), 학업의 중단은 소속감의 부재와 사회적인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학교가 청소년들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유지시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나 중퇴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나 중퇴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을 알아보려 하는 연구가 최근 상당수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학업중단과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크게 개인차 변인, 가정과 관련된 변인, 학교와 관련된 변인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금명자, 2008; 오혜영 등, 2012;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개인차 변인에는 우울성향, 공격적인 성향 및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이 해당되며, 가정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 등이 해당하며, 학교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 진로 문제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상의 연구들에서 다룬 변인들은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형성된 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들의 효과에 더하여, 장기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지닐 수 있다고 가정한 요소는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이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의 효과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 예를 들어 정서 및 행동적 문제들,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 혹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다시 학업을 중단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학교중퇴 의도와 관련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및 행동적 문제들,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 혹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였거나 혹은 이들이 내포한 심리사회적 요인들로 보았다. 이 요소들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다만,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학교중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업중단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자퇴나 퇴학 등과 같은 이유로 학교를 떠난다고 해서 학업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업중

단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실제로 금명자(2008)는 고찰 논문에서 학업과 학교, 중퇴와 중단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금명자(2008)의 연구에서는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42조에 규정된 '학업중단의 정의를 사용하였는데, 이 정의에서는 학교를 떠나는 것을 학업중단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학교를 떠나는 사건을 핵심으로 하여 '학교중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떠나는 행동이 발생하기에 앞서 그 행동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학교중퇴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하고 측정되는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칠 심리사회적 요인들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변인들은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의 피해경험,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및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측정된 정신의학적 문제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 비행, 일탈, 충동성 등과 같은 행동적 문제, 그리고 자살사고나 정신분열증상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에는 외현화된 문제와 내현화된 문제가 상호상관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였다(정승아, 안동현, 정선녀, 정윤경, 김윤영, 2008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현재 겪는 정신의학적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포함된 심리사회적 요인은 학교폭

력과 관련된 경험이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자주 보도되면서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중복 경험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이다. 이상균(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학교폭력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구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 둘을 모두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1997)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이 학교중퇴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학교폭력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학업을 중단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꼽았다.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부담이 오히려 학교라는 장면을 떠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고(2011. 5. 19, 한국일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점은 최근 여러 연구나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백승정, 2010). 이러한 현상은 고통과 부담을 주는 불쾌한 자극이나 그것을 유발시키는 현상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행동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은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인간의 적응적인 자기조절과정이라는 관점(Higgins, 1998)과도 일관된다. 따라서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대상 혹은 장면으로 인식되는 학교 장면을 떠나려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부가하여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도 중퇴의도를

높일 수 있지만, 우울감이나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의학적 문제를 거쳐서 학교 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도 가능하다. 이에 간접적인 효과도 경로에 포함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 경험 및 학업성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외상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이 되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 극심한 불안, 공포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 1994). 외상이론(Trauma model)에 따르면, 아동기에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학대나 방임, 수치심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경험이 이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외상적 사건이 될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Dutton, 1999; Haapasalo & Pokela, 1999; 김은정, 2009, 22쪽에서 재인용).

아동기 외상경험이 인지,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정서 문제나 부적응적 행동문제와 관련되는 점을 보인 선행연구들은 많다. 먼저, 아동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 또는 방임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인지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이후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김은정, 김진숙, 2010). 또한 아동기 외상은 섭식장애, 자해행동과 관련이 있었고, 아동기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외상경험은 이후 자해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공성숙,

이정현, 신미연, 2009).

이에 더해 광금주와 문은영(199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심리적 갈등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들은 심리적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어 비행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아동기에 학대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후 신체적으로 폭력적인 대인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Briere & Runtz, 1990; 이유경, 2006, 14쪽에서 재인용),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청소년기에 비행이나 폭력범죄에도 영향을 미쳤다(민수홍, 1998). 아동기 학대와 초기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이후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린 시절 부모와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를 경험하고 신체적,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기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체적이거나 언어적 학대를 반복해서 경험하였다(Belt & Abidin, 1996).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에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성인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Yehuda, Halligan, & Bierer, 2001)에서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점도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외상에 대한 취약성에 아동기 학대 경험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를 초래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나, 아동기 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사연구(Legano, Mchugh, & Palusci, 2009)를 보면, 어린 시절 성적학대 및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수치심,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 낮은 자존감, 돌봄이나 사랑과 같은 정서를 무시하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범죄행동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모델링 하는 것, 정신건강 및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특히 방임은 언어와 대처기술, 그리고 긍정적 상호작용과 같은 인지적인 결핍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수치심, 부적절한 자기감, 고립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대처기술능력, 정서표현능력, 질 좋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다양한 정신의학적 문제에 취약해지며 비행이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경험은 청소년기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의학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함께 학교폭력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적 경험이 청소년기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가하여,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아동기 외상경험은 다양한 정서 및 행동의 문제를 유발하고, 안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당면한 주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도 부적응적으로 대처할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추론해 보면, 아동기 외상경험은 청소년기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나 그에 대한 대처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학교중퇴 의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정서나

행동적인 문제에 더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부적응과도 관련될 것이라고 보았다. 장덕희(2004)는 부적응을 우울, 불안 혹은 정서적 철회와 같은 정서적 부적응, 비행이나 공격성 같은 행동적 부적응, 사회적 미성숙이나 학업 수행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여 폭력과 청소년기 부적응의 관련성을 알아본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우에 그 심각도가 클수록 청소년의 부적응 정도가 높아졌다. 특히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이후 정서적 철회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또한 김혜성, 김혜련 그리고 박수경(2006)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을 비교하여 학대경험이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적응은 학업에 대한 흥미저하,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무단결석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적 사건들은 청소년의 대인관계나 소속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라는 조직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물론 부적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학업에 대한 흥미의 저하나 또래갈등, 결석 등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부적응의 지표 가운데 한 유형이며, 부적응의 최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학교중퇴 의도를 포함하였고, 이 의도에 아동기 외상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와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 그리고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 그리고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아동기 외상경험은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현재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당면한 문제들을 거쳐서 학교중퇴 의도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성차를 보이기도 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강하였으며(박재연, 2010;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특히 자살사고에 미치는 효과는 여학생들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재연, 2010). 또한 김혜원과 장명심(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교내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특히 여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 요인 중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 인간관계 측면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적이 낮아지거나 올라갈 때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보인 연구도 있다(김

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 2012; 김현희,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를 고려해볼 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부가하여 김은경(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수치심, 죄책감에 대해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방임이 현재의 정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효과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강했고, 과거의 정서적 학대가 현재의 정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효과는 남학생들에게서 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들, 구체적으로 정신의학적 문제, 학업성적 스트레스,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들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외상의 경험이 현재에 초래하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달라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직접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경기도 한 도시에 소재한 한 중학교의 1학년과 2학년 전체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그리고

학교중퇴 의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포함된 질문지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경기도 한 도시에 소재한 정신보건센터 '틴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뢰되어 실시되었다.

질문지를 실시하고 수거한 조사자는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을 모르는 심리학 전공자였으며, 각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후, 참여하기를 수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 문항 개수와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작성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나 내용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응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지의 문항을 읽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도중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는 조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다. 응답을 마친 학생들의 질문지를 각 학교별로 수거하여 각 학교의 상담실에 보관되었다. 총 721부가 수거되었는데, 결측치가 포함된 16명의 자료가 제외되고, 70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여학생 355명, 남학생 350명이었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경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은경(2008)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7문항씩 4점 척도('1'부터 '4'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3개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a = .70$, $a = .72$, a

$= .59$ 이었다. 각 소척도의 4개 문항이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되었다.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정승아 등(2008)이 개발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검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신의학적 문제, 두 가지 유형의 비행, 학습, 가족관계, 성욕구, 성행위, 통제력 상실의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문항으로 4점 척도('1'부터 '4'까지)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하위 척도 중 청소년기의 주요 정신의학적 증상들을 측정하는 첫 번째 하위척도, 즉 정신의학적 문제를 사용하였다. 이 하위척도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증상들은 정신의학적 문제들로서, 우울, 불안, 충동, 자살사고, 및 정신분열증상 등을 포함한다. 총 10문항을 세 개의 덩이(parcel)로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a = .62$ 이었다.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Olweus(1993)의 '학교폭력 가해·피해 설문지'(Bully·victim Questionnaire)를 기초로 손원경(1998)이 제작하고, 장윤지(2005)가 사용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가해경험 11문항과 피해경험 11문항으로 이루어지며, 6점 척도('1'부터 '6'까지)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손원경(1998)이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가해경험이 $a = .76$, 피해경험이 $a = .82$ 였고 장윤지(2005)의 연구에서는 가해경험이 $a = .85$, 피해경험이 $a = .89$ 로 나왔다.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가해경험, $a = .86$, 피해경

험, $a = .81$ 이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11문항을 네 개의 덩이(parcel)로 만들고, 학교폭력 피해경험 11문항을 네 개의 덩이(parcel)로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업성적 스트레스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는 오미향과 천성문(1994)의 질문지를 이주원(2008)이 수정하고 백승정(2010)이 사용한, 총 3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오미향과 천성문(1994)의 질문지는 학업스트레스요인 75문항과 학업스트레스증상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05문항이며, 이주원(2008)이 자신의 연구에 맞게 학업스트레스요인 75문항 중 성적, 시험, 수업, 공부에 해당하는 35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백승정(2010)이 사용하였다. 백승정(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a =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연구의 가설에서 언급한 성격스트레스 소척도만 분석에 사용하였고,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1'부터 '5'까지)이다. 7개의 문항을 3개의 덩이로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a = .81$ 이었다.

학교중퇴 의도

청소년이 학교중퇴 의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가 부재한 실정인바, 본 연구자들이 학교중퇴 의도를 측정할 만한 초기문항들을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초기 문항은 총 13문항이었으며, 5점 척도('1'부터 '5'까지)이다.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299명의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표집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4문항이 선정되었다(예: “나는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 있다”). 문항분석을 위해 사용된 독립된 다른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a = .85$ 이었고,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a = .86$ 이었다.

자료의 분석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과 같은 외상적 경험이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학교폭력의 피해경험, 학업스트레스를 거쳐서 학교중퇴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Lisrel 8.52판을 이용하여 공분산행렬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 외상의 3개 소척도는 4개 문항들로 이루어지며, 학교중퇴 의도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매개효과를 지닐 것으로 가정된 변인들은 7개에서 1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변량구조분석에서 각 척도들의 비중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학교폭력의 피해경험, 학업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3개 혹은 4개의 덩이(parcel)들을 구성하여 공분산행렬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한 후,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집단 공변량구조분석(multi-group SEM)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측정하고자 의도한 관찰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는 SPSS 13.0판을 사용

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통계치

표 1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각 변인들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평균값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를 보면, 정서적 학대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들($M = 1.37$)보다 여학생들($M = 1.52$)이 아동기에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외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수준이 더 높았다($t = 3.81, p < .00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변수들이 가정된 잠재변인에 부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해

공변량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chi^2 (374, N = 705) = 1037.11, p < .001; RMSEA = .05; GFI = .91, CFI = .97, NFI = .95, NNFI = .96$. 모든 요인 부하량은 .40 이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경험 및 학업성적스트레스를 거쳐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록의 표 1에 제시한 상관계수들을 보면, 남학생들의 학업성적스트레스가 중퇴의도 및 학교폭력의 경험들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은 유의한 영차상관관계를 지녔다. 따라서 매개관계를 검증할 기초적인 필요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표 1.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변인	남자($n = 350$) 평균(표준편차)	여자($n = 355$) 평균(표준편차)	t
학업중퇴의도	1.23(.56)	1.23(.53)	-.08
정신의학적문제	1.35(.33)	1.34(.30)	.52
학교폭력 피해경험	1.33(.54)	1.39(.58)	-1.67
학교폭력 가해경험	1.31(.56)	1.30(.47)	.23
성적스트레스	2.77(.94)	2.82(.92)	-.61
정서적학대	1.37(.49)	1.52(.60)	-3.81***
신체적학대	1.30(.48)	1.24(.43)	1.64
신체적방임	1.29(.44)	1.28(.39)	.22

*** $p < .001$.

이용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구조모형에서 자유화시킬 경로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중퇴 의도를 예측하는지 확인한 결과, 정서적 학대, $\beta = .15, t = 3.62, p < .001$, 신체적 학대, $\beta = .16, t = 3.76, p < .001$, 그리고 방임, $\beta = .15, t = 3.82, p < .001$, 은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네 변인들이 학교중퇴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에서 정신의학적 문제, $\beta = .31, t = 8.23, p < .001$, 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beta = .24, t = 5.50, p < .001$, 은 학교중퇴 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가해경험, $\beta = .03, t = .73$, 과 학업성적 스트레스, $\beta = .01, t = .35$, 는 그렇지 않았다. 이에 정신의학적 문제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중퇴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지 Baron과 Kenny(1986)가 권고한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1 단계에 정신의학적 문제를 투입하고, 2 단계에 세 가지 아동기 학대경험을 투입하였을 때, 정서적 학대가 중퇴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 $\beta = .07, t = 1.58$, 신체적 방임의 효과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beta = .09, t = 2.26$. 1 단계에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을 투입하고, 2 단계에 세 가지 아동기 학대경험을 투입하였을 때, 정서적 학대가 중퇴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8, t = 1.77$.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세 가지 유형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모두 외생변인들(exogenous variables)로,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성적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중퇴 의도는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s)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정신의학적 문제를 거쳐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학대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을 거쳐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김준호 등, 1997)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설정하였고, 세 가지 유형의 학대경험의 상호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구조모형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설명력과 부합도 지수가 일정한 기준(예, RMSEA < .05)에 이를 때까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값에 근거하여 경로를 하나씩 자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유화된 경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정서적 학대가 학업성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신체적 학대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방임이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학업성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었다.

다음으로, 최종 설정된 모형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이는 경로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여학생 집단과 남학생 집단 별로 경로계수가 다르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의 χ^2 값을 구하였다, $\chi^2 = 2340.12$. 그리고 10개 경로계수들을 차례로 하나씩 성별에 따라 달리 추정하도록 자유화시켰고, χ^2 의 값이 유의하게 감소된 경로를 먼저 확인하였다. 유의하게 감소된 경로는 정신의학적 문제와 피해경험이 중퇴 의도에 미치는 경로 그리고 방임이 정신의학적 문제에 미치는 경로이었다. 이 세 경로를 성별에 따라 달리 추정되도록 자유화된 조건에서 $\chi^2 = 2307.80$ 이었고, 감소한 χ^2 값의 감소량은 유의하였으므로, $\Delta \chi^2 = 32.32, df = 3, p < .001$, 세 경로에서 성별에 따라 각기 경로계수를 산정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

최종 결정된 구조모형과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학교중퇴 의도를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변인들로 예측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chi^2(387, N = 705) = 1055.55, p < .001; RMSEA = .05; GFI = .91, CFI = .97, NFI = .95, NNFI = .96$. 학교중퇴 의도의 24%,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의 49%,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22%,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19%, 성적 스트레스의 15%가 본 연구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그림에는 중다집단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다. 괄호 밖의 경로계수는 전체 집단에서 구한 값이며, 괄호 안에는 여학생 집단과 남학생 집단 순서(여학생 집단에서 얻은 경로계수 / 남학생 집단에서 얻은 경로계수)로 경로계수를 각각 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정신의학적 문제, $\beta = .52, t = 6.80, p < .001$, 학교폭력 피해, $\beta = .14, t = 2.35, p < .05$, 성적 스트레스, $\beta = .38, t = 6.69, p < .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학교폭력 피해경험, $\beta = .25, t = 3.70, p < .001$, 과 가해경험, $\beta = .31, t = 5.76, p < .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한 방임은 정신의학적 문제, $\beta = .27, t = 4.04, p < .001$, 학교폭력 가해경험, $\beta = .18, t = 2.99, p < .01$, 성적스트레스, $\beta = .20, t = 3.37, p < .01$,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외에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상관이 유의하였고, $\beta = .42, t = 8.42, p < .001$. 정신의학적 문제와 학교성적 스트레스의 상관이 유의하였으며, $\beta = .14, t = 3.16, p < .01$. 세 가지 유형의 학대경험과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하였다, $.44 < \beta < .69, 5.65 < t < 7.95, p < .001$. 과거 외상경험이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변인을 거쳐서 학교중퇴 의도로 가는 간접효과들도 모두 유의하였다, $.07 < bs < .40, 3.13 < t < 5.70, p < .01$.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계수가 달라지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표 2 참고). 즉, 아동기 방임이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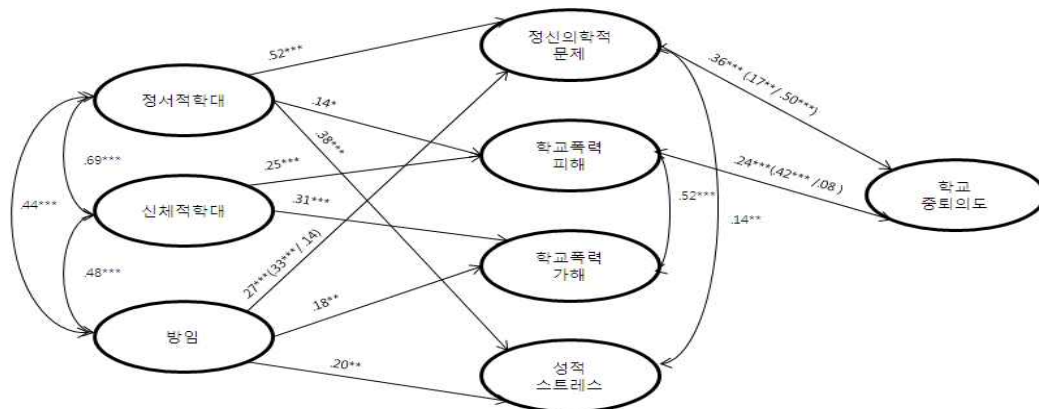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중퇴 의도에 대한 중다집단 구조모형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집단별 구조모형의 총효과 및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

경로	여학생 집단		남학생 집단	
	총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정서적학대 → 정신의학적문제	.53***	.	.58***	
정서적학대 → 학교폭력피해경험	.17**	.	.17**	
정서적학대 → 성적스트레스	.38***	.	.38***	
정서적학대 → 학교중퇴의도	.16**	.16**	.31***	.31***
신체적학대 → 학교폭력피해경험	.23***	.	.22***	
신체적학대 → 학교폭력가해경험	.33***	.	.33***	
신체적학대 → 학교중퇴의도	.10**	.10**	.02	.02
방임 → 정신의학적문제	.33***	.	.14	
방임 → 학교폭력피해경험	.18**	.	.18**	
방임 → 학교폭력가해경험	.19***	.	.19***	
방임 → 학교중퇴의도	.13**	.13**	.09	.09
정신의학적문제 → 학교중퇴의도	.17**	.	.50***	
학교폭력피해 → 학교중퇴의도	.42***	.	.08	

** $p < .01$ *** $p < .001$

는 여학생들에게서는 유의하였고, $\beta = .33$, $t = 3.98$, $p < .001$,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중퇴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여학생들에게서만 유의하였다, $\beta = .42$, $t = 6.91$, $p < .001$. 반면에 정신의학적 문제가 중퇴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여학생들, $\beta = .17$, $t = 2.81$, $p < .01$, 과 남학생들, $\beta = .50$, $t = 7.03$, $p < .001$, 에게서 모두 유의하였는데, 그 강도가 남학생들에게서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아동

기의 경험과 현재 청소년기에 겪는 경험들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아동기의 경험은 세 가지 유형의 외상과 관련되는 사건들을 포함하였고, 현재 겪는 경험들로는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서와 행동문제를 의미하는 정신의학적 문제를 포함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동기 외상적 경험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정신의학적 문제들에 영향을 미쳤고, 이 가운데 정신의학적 문제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경험은 학교를 중퇴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인들 가운데 정

신의학적 문제가 학교중퇴 의도를 강력하게 예측하였다. 물론 청소년들이 드러내는 정서나 행동의 정신의학적 문제들은 이들이 본래 지닌 취약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들이 외적 문제에 반응하여 겪는 어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에서 정신의학적 문제는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경험과는 낮은 수준의 공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신의학적 문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반영하기보다는 이들이 상당 기간 지내왔을 내재화 혹은 외재화된 문제를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나 학교중퇴에 사회적 관심이나 교육정책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현상들 이외의 여러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중학생들이 지닌 정신의학적 문제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서적 혹은 행동적인 차원들에서 여러 문제나 장애를 겪는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중퇴의도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그에 수반된 제반 문제들, 예로 학교폭력에 노출되거나 학업성취도를 이루기 어려워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중퇴의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방안이나 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들이 지닌 취약성에 충분한 관심과 예방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신의학적 문제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학교중퇴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학교중퇴 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지만, 정신의학적 문제는 학교중퇴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여학생들은 정신의학적 문제보다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중퇴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하였다. 즉, 남학생들은 정신의학적 문제에 의해서, 그리고 여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에 의해서 학교를 중퇴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중퇴를 예방하고자 하거나 폭력에 노출된 경험에 대해 중학생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수집할 때에, 이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결과는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향후 재확증이 필요하며 성차가 나타난 기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간 상호상관이 유의했던 점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보인 선행연구(김준호 등, 1997)와 일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문항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경험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에 응답한 712명 가운데 피해경험만 보고한 중학생은 27명(3.8%), 가해경험만 보고한 중학생은 37명(5.2%), 피해 및 가해경험을 모두 보고한 중학생은 60명(8.4%)이었다. 현재 본 연구의 측정치가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시간적인 선후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이 두 요소간 공변하는 경로만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시간상의 선후까지 포괄하여 측정한다면, 피해자에서 가해자 혹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행하며, 이들이 겪는 정신적 그리고 적응의 어려움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학교를 중퇴할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최근 매체에서 보도한,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성적비판으로 인해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들(2013. 4. 16, 국민일보)과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학업성적 스트레스는 정신의학적 문제와 유의한 공변관계를 나타냈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개변인들간 인과관계보다는 공변관계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서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업성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정서 혹은 행동적 어려움을 높이고, 이는 다시 중퇴의도를 높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아동기 외상경험이 현재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동기 신체적 학대를 겪은 청소년들은 자신도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서적 학대를 겪은 청소년들은 현재 정서나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신체적 학대가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의 재현을 높이며, 청소년기의 정신의학적 문제들이 아동기 정서적 지지나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핍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음을 보인 선행연구들(민수홍, 1998; 허정윤, 유영달, 2012)과도 일관된다. 이에 더해 아동기 방임에 노출되는 경우에 청소년기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는 중요한 성취과제에 직면하여 스트레스를 겪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에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는 경험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

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방임이 정신의학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가 여학생들에게서 유의했던 점은 선행연구(김은경, 2009)와도 일관된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시사점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본 연구가 개입이나 치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학교중퇴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청소년들, 적어도 중학생들이 학교라는 중요한 사회적 장면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의학적 문제가 학교중퇴 의도와 가장 강하게 관련되며, 이 요소는 과거의 외상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현재 겪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도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외상의 장기적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학업성적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혹은 학교중퇴 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겪는 정신의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살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안과 별도로 중학생들의 정서나 행동문제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내 상담이나 개입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전문기관 간에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겪는 내재 혹은 외재화된 문제들에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아동기에 겪는 고통부터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정폭력, 이혼 그리고 양육의 포기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현 시점만이 아니라 장래 우리사회의 취약성을 높이는 위험요소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으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도 그 자체로 치료적 효과를 이룰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청소년들이 겪은 외상경험들을 파악하고, 이들 스스로 외상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하여 외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취약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모듈이나 치료적 회기를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셋째,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며, 현재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경험에 노출된 학생들도 과거에 그에 상반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겠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라는 점으로부터 상담자나 치료자가 편견이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이는 추가적인 탐색이나 자유로운 반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래 연구의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한 도시의 한 중학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도시는 대도시와 교외 지역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장래 대도시나 교외 지역의 도시들로까지 확장하여 본 연구의 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기 외상경험의 장기적 효과와 현재 겪는 학교내 경험들의 효과들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생들이었다. 교과과정의 제약으로 인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제외되었고, 중학교 3학년생들이 처한 상황이나 학업적인 부담이 나머지 학년과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참가자들 표집의 구성은 본 연구의 결과가 중학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화가능성을 낮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중퇴의도는 실제 중퇴를 결정하거나 선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가까운 시일 이내에 중퇴를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Ajzen(2001)에 의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근접의 요소는 그 행동에 대한 의도이며, 행동에 대한 예측력도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행동에 대한 의도는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일 뿐, 행동이 발생한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중퇴를 예측하였다기보다는 중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중퇴하고자 하는 선택을 높이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는 수준까지 해석될 수 있다. 중퇴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결석이나 전학과 같은 행동측정치를 측정하고, 종단적 설계를 사용한 장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외상경험을 아동기에 측정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현재의 경험에 의해서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이 편파될 수 있는 취약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학교폭력에 노출되었거나 정서나 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데서도 부정적인 편파를 드러낼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도 장래 중단설계의 연구를 통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서 기술한 한계점과 관련하여 아동기 외상경험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방임의 신뢰도는 특히 낮았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중대한 외상적 경험은 학교 생활에 비교적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이 과거에 경험했을 가능성이나 그 빈도가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측정모형을 검증했을 때, 외상경험의 각 문항이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상관관계나 구조모형에서 얻은 경로계수, 그리고 부가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의 변인간 연합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3요인 구조는 타당도를 어느 정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측정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은 외상경험이 초래하는 결과의 영향력은 표집이나 참가자에 의해 차별적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는 보다 신뢰로운 도구를 활용하거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신뢰롭게 측정된 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얻은 변인들의 평균값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 학교의 두 개 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상담이나 치료를 의뢰된 특정한 표집이 아닌, 전체 학생들로부터 얻은 자료이므로 여러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본 연구의 변인들의 수준이나 강도는 낮았다. 다만, 다양한 학생들이 대부분 포함된 자료라는 점에서 장차 특정한 표집으로부터 얻은 값이나 결과와 비교될 수 있는 기저선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여러 선행변인들은 중학생들의 학교중

퇴 의도의 약 24%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학교를 중퇴하려는 의도의 나머지 변량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셈이다. 이에겐 자존심, 공격성, 부모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수준 등과 같이 선행 연구들(금명자, 2008; 오혜영 등, 2012; 이자영 등, 2010)에서 다룬 변인들이 해당될 수 있으며, 여전히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역할이 발견되지 못한 변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는 학교중퇴 의도를 높이는 위험요인들의 효과를 다루고, 이를 완화시킬 만한 보호요인은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래 연구를 통하여 학교중퇴 의도를 높이는 위험요인과 이를 낮추는 보호요인이 추가적으로 탐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2. 12. 29). 학교서도 사회서도 발 딛지 못한 '무중력' 아이들, 꿈을 품다.
 공성숙, 이정현, 신미연 (2009). 섭식장애 환자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간 갈등의 매개효과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8, 31-40.
 교육과학기술부 (2013. 4. 22). "매년 6~7만명 발생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 조사항목 개선"
 국민일보 (2013. 4. 16). 극단적 자살 10대 '소리없는 비명'... 성적·입시 스트레스 극에 달해 벼랑으로 내몰려.
 곽금주, 문은영 (1993). 사춘기 남녀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1-41.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 299-317.
- 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 (2012). 고등학생의 성적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 165-187.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 (2009).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중재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6, 45-75.
- 김은정 (2009).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605-630.
-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희 (2009).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와 시험불안과의 관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8-232.
- 김혜원, 장명심 (2004). 청소년들의 교내 성폭력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성별에 따른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1, 124-149.
- 민수홍 (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345-376.
- 백승정 (2010). 청소년의 부모 과잉허용 및 학업스트레스가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원경 (1998).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지각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향,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인해, 15, 63-96.
- 오혜영, 박현진, 지승희 (2012).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강화 집단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 545-571.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아동복지학, 19, 141-170.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69-84.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 225-241.
- 이주원 (2008). 자아탄력성과 학업전략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상위인지전략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덕희 (2004). 가정폭력 경험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 65-91.
- 장윤지 (2005). 학교폭력 유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2003).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승아, 안동현, 정선녀, 정윤경, 김윤영 (2008).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검사 개발 연구. *신경정신의학*, 47, 168-176.
- 한국일보 (2011. 5. 19). [웃어라!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 대안은.
- 허정윤, 유영달 (20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문화*, 24, 177-211.
- Ajen, I. (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179-21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lt, W., & Abidin, R. R. (1996). The relation of childhood Abuse and early parenting experiences to current marital quality in a nonclinical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0, 1019-1030.
- Briere, J., & Runtz, M. (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 357-364.
-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gins of intimate rag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 431-447
- Haapasalo, J., & Pokela, E. (1999). Child-rearing and child abuse antecedents of criminal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 107-127.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30, pp.1-46). NY: Academic Press.
- Legano, L., Mchugh, M. T., & Palusci, V. J. (2009). Child abuse and neglect. *Current Problems in Pediatric and Adolescent Health Care*, 39, 31.e1-31.e26.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Yehuda, R., Halligan, S. L., & Bierer, L. M. (2001). Relationship of parental trauma exposure and PTSD to PTSD,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in offspring.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5, 261-270.
- 원고접수일 : 2013. 05.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7. 31.
최종게재결정일 : 2013. 08. 24.

Predictors of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School Violence, and Psychiatric problems

Seok, Mi-ran

Jang, Eun-young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victimizing and perpetrating of bullying, psychiatric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stres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tudents of a middle school in a city of Gyeonggi-do. In order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effect of childhood trauma and the mediational role of psychiatric problem, bullying and academic stress, w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odel confirmed a good fit to the data. Generally,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sociated with psychiatric problem in adolescents which resulted i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Also, childhood emotional abuse associated with victimizing which resulted in the intention. Even though perpetrating and academic stress failed to predict the intention, physical abuse was associated with victimizing and perpetrating and neglect was associated with perpetrating academic stress. We also explored gender difference in path coefficients by multi-sample S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ths from neglect to psychiatric problems and from victimizing to intention of dropout were significant only in females. Additionally, the effect of psychiatric problems on intention of dropout was stronger in males. Finally,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discussed with the stream of previous research.

Key words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Middle school students, Childhood trauma, School violence, Academic achievement stress.*

부 록

표 1.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상관관계 ($n = 705$)

	여학생	학교중퇴 의도	정신의학 문제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성적 스트레스	정서 학대	신체 학대	신체 방임
학교중퇴 의도	1.00	1.00	.37***	.51***	.35***	.19***	.34***	.33***	.30***
정신의학 문제	.42***	.42***	1.00	.41***	.34***	.39***	.54***	.48***	.50***
학교폭력 피해경험	.21***	.21***	.26***	1.00	.57***	.25***	.42***	.36***	.27***
학교폭력 가해경험	.21***	.21***	.27***	.67***	1.00	.21***	.28***	.35***	.26***
성적 스트레스	.10	.10	.24***	.03	-.04	1.00	.37***	.27***	.22***
정서 학대	.22***	.22***	.37***	.39***	.30***	.27***	1.00	.52***	.38***
신체 학대	.22***	.22***	.32***	.34***	.29***	.21***	.52***	1.00	.40***
신체 방임	.19***	.19***	.22***	.21***	.18**	.18**	.29***	.19***	1.00

** $p < .01$, *** $p < .001$.